

#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전망

## 요약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대다수 산업에서 상반기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증가), 철강(3.8% 증가), 이차전지(9.2% 증가), 바이오헬스(3.6% 증가)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0.2% 증가)와 일반기계(0.3% 감소)는 부진하지만, 조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6.6% 증가가 예상되고, 소재산업군 수출은 단가 하락 및 수입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비 8.6% 감소하며, IT·신산업군 수출 역시 정보통신기기(13.6% 감소)와 반도체(12.8% 감소)가 크게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생산은 조선(73.6% 증가), 철강(4.1% 증가), 이차전지(10.9% 증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1.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는 친환경 및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부문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고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기술패권 경쟁 확산 등의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반적인 수요 회복세는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사양 프리미엄 정보통신기기(고사양 노트북, 5G 폴더블폰 등)와 스마트 가전, OLED 패널 등 프리미엄 ICT 제품은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탄소중립의 중요성 증대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차전지 등의 수요 역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하반기 국내 주력산업의 주요 수출국 수요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 수요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수출은 자동차(이연 수요), 일반기계(인프라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기(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가전(소비심리 회복), 이차전지(전기차 판매 호조), 바이오헬스(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등에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의 경기 불안으로 수요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중간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코로나 정책 완화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가전 등에서 5% 내외의 제한적 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는 하반기에도 큰 폭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하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은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거점 국가에서의 현지 생산과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생산 차질로 인해 누적된 이연 수요 충족을 위해 대부분의 해외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나, 중국 현지 생산은 러시아와 로컬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판매 부진이 지속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은 2023년 국내 건조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블록 제작 협력사의 생산 증대 어려움으로 인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중국 블록공장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기는 상반기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 및 부품 해외

생산이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중국 내 소비 및 수출이 감소하여 중국 현지 생산은 축소될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유럽(폴란드, 헝가리) 등 해외 생산 기반 확대 추세로 하반기 해외 생산 증대가 기대되며, 바이오헬스의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미미하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신규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생산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는 대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수요산업 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이 내수 회복 흐름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는 하반기 누적된 이연 수요가 상당 부분 실현되고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규 수요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은 해운 시황 악화와 환경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금리와 금융 불안에 따른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국내 발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 내수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항공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산업용 수요 위축으로 내수 증가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통신기와 가전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이 점차 약화하고,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여 신규 스마트폰 및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소폭의 내수 개선이 기대된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차전지는 주요 수요산업인 국내 친환경차 판매증가세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내수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헬스 역시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국내 허가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로 하반기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은 공급망 정상화(자동차), 생산설비 신증설 및 가동률 향상(정유, 석유화학), 투자 증가(이차전지, 바이오헬스)에 힘입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인력 부족(조선) 및 해외 생산 확대(가전)로 공급능력 위축이 우려된다. 자동차 생산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공급망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지난 2년간 저조했던 가동률 만회를 위한 신규 모델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공급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의 경우 생산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정상화되고 내국인 인력도 증가하면서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2020년 하반기 이후 대

량 수주물량의 누적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유, 석유 화학은 설비 신증설 완료 및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공급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은 글로벌 생산거점 확립으로 국내 공급능력 영향력은 미미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생산설비의 효율화·합리화 투자와 더불어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내 신규 투자가 완료되면서 공급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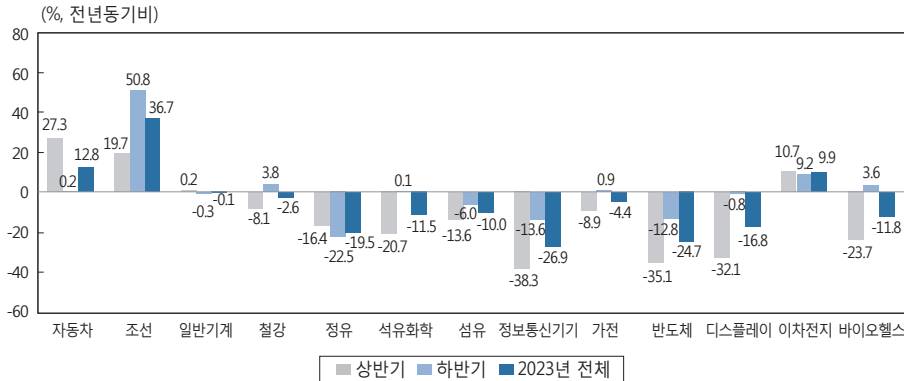
### (1) 수출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증가), 철강(3.8%), 이차전지(9.2%), 바이오헬스(3.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3.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4.3%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0.2%)와 일반기계(-0.3%)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조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누적된 이연 수요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고 고금리, 경기불안 요인으로 신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조선 수출은 생산 지연으로 예상보다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인력 충원으로 생산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비 50.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반기계는 대미, 대유럽 수출은 하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비 0.3%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수출은 단가 하락 및 수입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2.4%) 증가에서 올해 하반기(-8.6%)에는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철강은 중국의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과 EU 제조업 생산 회복세로 수출물량(3.4%)과 수출액(3.8%)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유는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 및 비OECD 국가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전년동기 수출물량(9.6%) 확대의 기저효과와 수출단가 및 정제마진의 동반 하락으로 수출물량(-1.0%)과 수출액(-22.5%)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수출은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림 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국내 생산 증가와 중국향 수출 회복으로 전년동기비 1.9%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섬유 수출은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악재로 전년동기(-12.7%)에 이어 올해 하반기(-6.0%)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IT·신산업군 수출은 정보통신기기(-13.6%)와 반도체(-12.8%)가 크게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다소 완화되면서 수요가 개선되고 누적된 재고 해소, 신제품 출시 및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13.6%를 기록하며 상반기(-38.3%) 대비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전 수출은 세계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19.6%)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둔화 지속으로 회복세는 지연될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12.8%)에도 부진이 예상되지만, 최근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최저점을 지나고 있고, 고부가 제품 확산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설비 교체 및 신규 수요 확대로 상반기(-35.1%)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패널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지연으로 전년동기비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는 대미 수출 확대에 증가세는 지속되나 상반기(10.7%)보다 소폭 축소된 9.2% 증가가 예상되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위탁생산(CMO)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 해외 영업망과 네트워크 확보로 전년동기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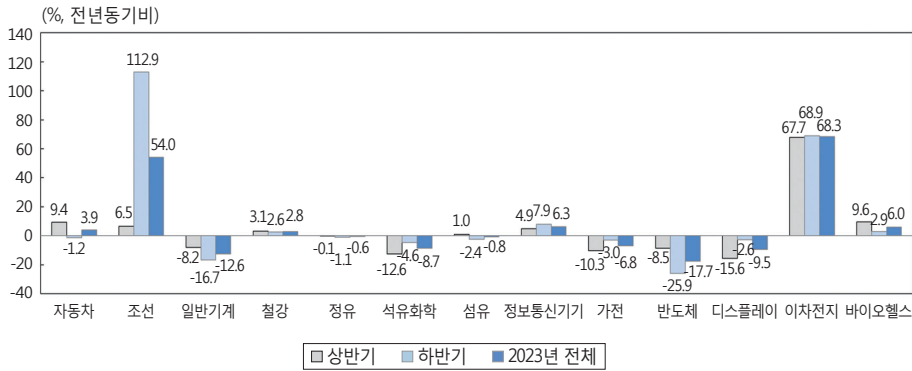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내수는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조선(112.9%), 정보통신기기(7.9%), 이차전지(68.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지속하거나 성장세가 둔화(철강, 바이오헬스)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에서는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내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내수는 하반기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동기(7.8%)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1.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LNG운반선 8척과 중국으로부터 벌크선과 페리선이 인도될 예정이어서 전년동기비 112.9%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우려와 함께 전년동기 내수 확대(5.2%)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16.7%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은 전방산업 업황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은 조선업을 제외한 대다수 수요산업이 부진하고, 건설 및 설비투자 역시 하반기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동기(-16.9%) 내수 급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하반기 내수는 2.6% 소폭 증가하고, 정유 내수는 여행 수요 확대에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의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는 증가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비 1.1% 감소가 예상된다. 석유화학 내수는 전방산업 수출 부진과 국내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으로 전년동기비 4.6% 감소가 전망되며, 섬유산업 내수 역시 민간소비 둔화, 섬유 및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년동기(8.8%) 실적 호조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신산업군 내수는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가 IT·신산업군 내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출시 예정인 국산·외산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7.9% 증가가 예상되고, 가전 내수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및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3.0% 감소가 전망된다. 반도체 내수는 수요 비중이 높은 PC를 비롯하여 SSD 등 반도체 가공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한 -25.9%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내수는 OLED 설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소재·부품 수요 축소로 전년동기비 2.6% 감소



〈그림 2〉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친환경차 세제지원 연장 조치에 따른 생산·판매 확대에 전년동기비 68.9%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헬스 내수는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 신약 개발,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존재하나 원료의약품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37.8%)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3)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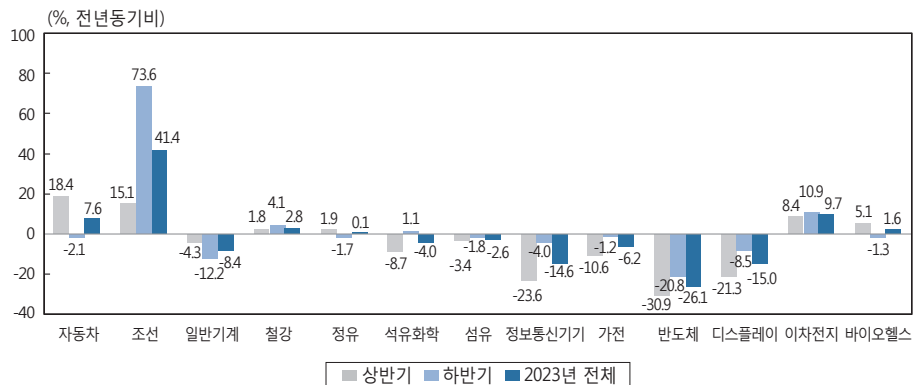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생산은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자동차(-2.1%)와 일반기계(-12.2%)는 내수경기 둔화로 감소하지만, 조선(73.6%)은 수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큰 폭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망 안정과 외자계 업체들의 생산 모델 투입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 정체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비 2.1% 감소한 193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선 생산은 선가가 높지 않았던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초에 대량으로 수주한 선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전년동기비 73.6%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일반기계 생산은 주요 수출국의 건설·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에 기계류 수입 수요는 증가하나, 내수경기 둔화 여파에 따른 기계류 재고율 상승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12.2% 감소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철강(4.1%), 석유화학(1.1%) 생산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정유(-1.7%), 섬유(-1.8%)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 생산은 태풍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크게 부진했던 생산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비 4.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정유 생산은 항공유 및 석유화학 제품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가 생산 확대를 견인하겠으나, 전년동기(5.5%) 기저효과 및 수요 회복 둔화로 1.7%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생산은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수익성)가 개선되고 수출량(1.9%)도 증가하지만, 내수 둔화와 낮은 재고소진율이 생산 증가폭을 제한하여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올해 하반기에도 감소세(-1.8%)가 지속될 전망이다.

IT·신산업군 생산은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부진, 해외 생산 확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세로 진입하고 내수도 증가(7.9%)로 전환하여 전년동기(-16.1%) 대비 감소폭(-4.0%)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전 생산은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의 확대와 설비 효율화 향상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내수 감소와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비 1.2% 감소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전년동기비 20.8% 큰 폭으로 감소하고, 디스플레이 생산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회복 부진으로 가동률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비 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생산은 대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동기비 10.9% 증가가 예상

〈그림 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되며, 바이오헬스 생산은 2022년 3분기 이후 수요가 감소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대신 독감 백신·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주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년동기비 1.3%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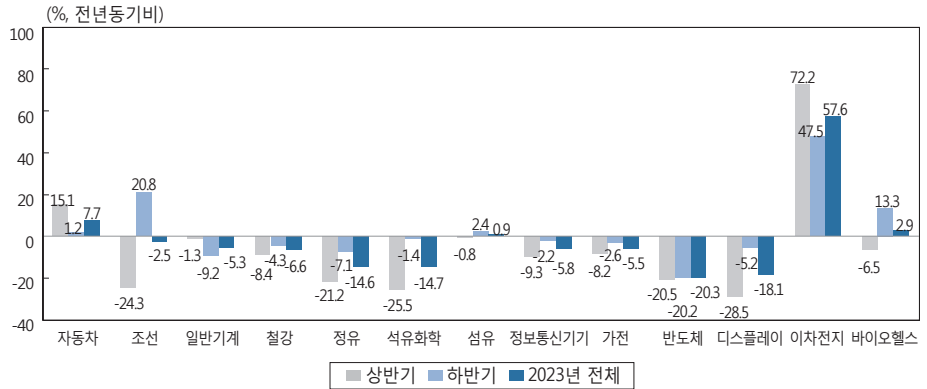
#### (4) 수입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동기비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수입의 경우 자동차(1.2%)와 조선(20.8%)은 증가하지만, 일반기계(-9.2%)가 감소하여 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3.5%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수입은 부품 수입 증가와 전동화, 초고가 차량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1.2% 증가가 예상되며, 조선은 해외 건조 선박 인수와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해외로부터 선체·해양플랜트 블록 등의 수입 확대로 전년동기비 20.8%의 큰 폭 증가가 기대되고, 일반기계 수입은 제조업 전반의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비 9.2% 감소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수입은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단가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수입 물량은 하반기 내수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5.9% 감소하고, 수입액은 단가 하락으로 4.3% 감소가 예상되며, 정유와 석유화학 수입액 역시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7.1%와 1.4% 감소할 전망이다. 섬유 수입은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수요는 증가하나, 내수 경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하여 전년동기비 2.4% 증가할 전망이다.

IT·신산업군 수입은 이차전지(47.5%), 바이오헬스(13.3%)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10.1%) 증가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6.5% 감소로 전환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하반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외산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상반기(-9.3%)보다 감소폭(-2.2%)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 수입은 국내 브랜드가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와 가공 단계의 웨이퍼 수입은 증가하지만,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20.2% 감소가 예상되고, 디스플레이 수입은 LCD 생산 중단에 따른 AS 및 재고 관리용 LCD 재수입 물량 축소로 전년동기비 5.2% 감소가 예상된다. 이차전지 하반기 수입은 전년도 하반기 증가율(57.0%)에는

〈그림 4〉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미치지 못하나 국내 전기차 판매량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47.5%로 높은 수입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헬스 수입은 바이오헬스산업 침체기를 벗어나 내수시장과 수출 회복으로 전년동기비 13.3%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KIEP)



박상수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

spark@kiet.re.kr / 044-287-3830

「2023년 경제·산업 전망」(공저, 2022)

「밸류체인 기반 산업경쟁력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공저, 2022)

〈표 1〉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69,240	36,126	41,257	77,383	45,971	41,350	87,322
	(23.6)	(2.6)	(21.2)	(11.8)	(27.3)	(0.2)	(12.8)
조선	22,988	8,241	9,937	18,178	9,864	14,988	24,852
	(16.4)	(-30.5)	(-10.7)	(-20.9)	(19.7)	(50.8)	(36.7)
일반기계	50,073	26,207	24,892	51,099	26,265	24,805	51,070
	(4.6)	(5.7)	(-1.5)	(2.0)	(0.2)	(-0.3)	(-0.1)
철강	36,367	20,754	17,694	38,448	19,063	18,374	37,437
	(36.9)	(26.8)	(-11.5)	(5.7)	(-8.1)	(3.8)	(-2.6)
정유	38,121	30,643	32,230	62,873	25,625	24,983	50,608
	(57.7)	(91.0)	(46.0)	(64.9)	(-16.4)	(-22.5)	(-19.5)
석유화학	55,092	30,258	24,057	54,316	23,997	24,080	48,077
	(54.8)	(16.6)	(-17.5)	(-1.4)	(-20.7)	(0.1)	(-11.5)
섬유	12,807	6,470	5,831	12,301	5,590	5,480	11,070
	(14.0)	(5.6)	(-12.7)	(-4.0)	(-13.6)	(-6.0)	(-10.0)
정보통신기기	33,557	18,811	16,056	34,867	11,610	13,868	25,478
	(23.8)	(27.1)	(-14.4)	(3.9)	(-38.3)	(-13.6)	(-26.9)
가전	8,669	4,351	3,676	8,027	3,965	3,710	7,675
	(24.1)	(6.2)	(-19.6)	(-7.4)	(-8.9)	(0.9)	(-4.4)
반도체	127,980	69,018	60,202	129,220	44,785	52,477	97,262
	(29.0)	(20.8)	(-15.0)	(1.0)	(-35.1)	(-12.8)	(-24.7)
디스플레이	21,385	10,815	10,334	21,149	7,343	10,251	17,595
	(18.9)	(17.5)	(-15.2)	(-1.1)	(-32.1)	(-0.8)	(-16.8)
이차전지	8,672	4,732	5,249	9,981	5,238	5,732	10,970
	(15.5)	(9.8)	(20.4)	(15.1)	(10.7)	(9.2)	(9.9)
바이오헬스	16,231	10,000	7,705	17,705	7,631	7,986	15,616
	(17.1)	(29.3)	(-9.3)	(9.1)	(-23.7)	(3.6)	(-11.8)
13대 합계	501,182	276,426	259,120	535,547	236,947	248,084	485,032
	(27.2)	(18.3)	(-3.2)	(6.9)	(-14.3)	(-4.3)	(-9.4)
	〈77.8〉	〈78.9〉	〈77.8〉	〈78.3〉	〈77.4〉	〈78.6〉	〈78.0〉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lt; &gt;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726 (-8.5)	808 (-11.3)	879 (7.8)	1,686 (-2.3)	884 (9.4)	868 (-1.2)	1,752 (3.9)
조선 (만CGT)	216 (-26.5)	77 (-43.4)	62 (-22.5)	139 (-35.6)	82 (6.5)	132 (112.9)	214 (54.0)
일반기계 (십억 원)	114,436 (20.4)	53,360 (-9.0)	58,708 (5.2)	112,067 (-2.1)	48,990 (-8.2)	48,930 (-16.7)	97,920 (-12.6)
철강 (천 톤)	56,041 (13.9)	27,744 (-0.4)	23,432 (-16.9)	51,176 (-8.7)	28,594 (3.1)	24,035 (2.6)	52,629 (2.8)
정유 (십만 배럴)	11,096 (6.9)	5,592 (4.1)	5,548 (-3.0)	11,140 (0.4)	5,586 (-0.1)	5,489 (-1.1)	11,075 (-0.6)
석유화학 (천 톤)	11,216 (5.5)	5,734 (-1.7)	5,387 (0.1)	11,120 (-0.8)	5,012 (-12.6)	5,140 (-4.6)	10,152 (-8.7)
섬유 (십억 원)	62,451 (-8.3)	29,824 (-3.5)	34,305 (8.8)	64,129 (2.7)	30,122 (1.0)	33,477 (-2.4)	63,598 (-0.8)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591 (3.6)	24,744 (-3.2)	23,193 (-10.9)	47,937 (-7.1)	25,954 (4.9)	25,020 (7.9)	50,974 (6.3)
가전 (십억 원)	31,568 (3.5)	15,925 (2.2)	14,659 (-8.3)	30,584 (-3.1)	14,282 (-10.3)	14,226 (-3.0)	28,508 (-6.8)
반도체 (십억 원)	63,243 (4.1)	32,831 (3.8)	36,737 (16.2)	69,568 (10.0)	30,045 (-8.5)	27,236 (-25.9)	57,281 (-17.7)
디스플레이 (십억 원)	36,835 (-5.2)	16,620 (-8.2)	14,513 (-22.5)	31,133 (-15.5)	14,026 (-15.6)	14,141 (-2.6)	28,167 (-9.5)
이차전지 (십억 원)	4,984 (14.3)	3,001 (50.9)	3,699 (22.7)	6,700 (34.4)	5,032 (67.7)	6,247 (68.9)	11,279 (68.3)
바이오헬스 (십억 원)	38,368 (17.5)	23,409 (28.5)	27,760 (37.8)	51,169 (33.4)	25,650 (9.6)	28,564 (2.9)	54,214 (6.0)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3〉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462 (-1.3)	1,779 (-2.0)	1,978 (20.0)	3,757 (8.5)	2,106 (18.4)	1,937 (-2.1)	4,043 (7.6)
조선 (만CGT)	1,052 (18.6)	430 (-32.1)	352 (-16.0)	782 (-25.7)	495 (15.1)	611 (73.6)	1,106 (41.4)
일반기계 (십억 원)	135,757 (15.2)	66,244 (-3.9)	71,009 (6.2)	137,253 (1.1)	63,395 (-4.3)	62,346 (-12.2)	125,741 (-8.4)
철강 (천 톤)	73,667 (4.7)	36,170 (-2.1)	31,634 (-13.8)	67,804 (-8.0)	36,806 (1.8)	32,923 (4.1)	69,729 (2.8)
정유 (십만 배럴)	11,638 (0.4)	6,084 (8.4)	6,356 (5.5)	12,440 (6.9)	6,201 (1.9)	6,250 (-1.7)	12,450 (0.1)
석유화학 (천 톤)	22,309 (4.4)	11,578 (6.6)	10,568 (-7.7)	22,146 (-0.7)	10,567 (-8.7)	10,683 (1.1)	21,250 (-4.0)
섬유 (십억 원)	56,141 (-9.8)	26,338 (-7.7)	27,413 (-0.7)	53,750 (-4.3)	25,450 (-3.4)	26,910 (-1.8)	52,360 (-2.6)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2,726 (6.7)	27,706 (12.6)	23,573 (-16.1)	51,279 (-2.7)	21,172 (-23.6)	22,626 (-4.0)	43,798 (-14.6)
가전 (십억 원)	31,204 (4.6)	15,766 (4.7)	14,096 (-12.7)	29,862 (-4.3)	14,089 (-10.6)	13,922 (-1.2)	28,011 (-6.2)
반도체 (십억 원)	139,591 (17.9)	74,136 (14.4)	67,120 (-10.2)	141,256 (1.2)	51,253 (-30.9)	53,127 (-20.8)	104,380 (-26.1)
디스플레이 (십억 원)	58,061 (3.3)	27,417 (1.8)	26,983 (-13.3)	54,400 (-6.3)	21,577 (-21.3)	24,689 (-8.5)	46,266 (-15.0)
이차전지 (십억 원)	10,705 (-1.4)	5,774 (9.5)	6,098 (12.3)	11,872 (10.9)	6,259 (8.4)	6,765 (10.9)	13,024 (9.7)
바이오헬스 (십억 원)	34,123 (13.9)	18,114 (7.4)	20,917 (21.2)	39,031 (14.4)	19,034 (5.1)	20,641 (-1.3)	39,674 (1.6)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4〉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20,492	10,436	11,697	22,133	12,014	11,832	23,846
	(10.2)	(-3.3)	(20.6)	(8.0)	(15.1)	(1.2)	(7.7)
조선	3,648	1,634	1,531	3,165	1,237	1,849	3,086
	(6.1)	(-3.1)	(-22.0)	(-13.2)	(-24.3)	(20.8)	(-2.5)
일반기계	31,433	15,749	15,913	31,662	15,539	14,445	29,984
	(9.6)	(1.1)	(0.4)	(0.7)	(-1.3)	(-9.2)	(-5.3)
철강	24,454	13,815	11,132	24,947	12,660	10,650	23,310
	(50.1)	(29.9)	(-19.4)	(2.0)	(-8.4)	(-4.3)	(-6.6)
정유	24,085	14,180	12,529	26,709	11,178	11,642	22,820
	(85.9)	(45.4)	(-12.6)	(10.9)	(-21.2)	(-7.1)	(-14.6)
석유화학	14,655	7,893	6,424	14,317	5,884	6,334	12,218
	(36.1)	(6.6)	(-11.4)	(-2.3)	(-25.5)	(-1.4)	(-14.7)
섬유	18,299	9,287	10,614	19,901	9,210	10,870	20,080
	(12.9)	(12.6)	(5.6)	(8.8)	(-0.8)	(2.4)	(0.9)
정보통신기기	32,564	16,418	16,046	32,464	14,886	15,699	30,585
	(18.6)	(4.9)	(-5.1)	(-0.3)	(-9.3)	(-2.2)	(-5.8)
가전	9,001	4,480	4,067	8,547	4,114	3,960	8,074
	(19.1)	(-1.9)	(-8.3)	(-5.1)	(-8.2)	(-2.6)	(-5.5)
반도체	61,362	35,646	39,117	74,763	28,351	31,225	59,576
	(22.0)	(30.0)	(15.3)	(21.8)	(-20.5)	(-20.2)	(-20.3)
디스플레이	2,883	2,087	1,680	3,767	1,492	1,593	3,085
	(-12.8)	(59.2)	(6.9)	(30.7)	(-28.5)	(-5.2)	(-18.1)
이차전지	3,666	2,490	3,599	6,089	4,287	5,307	9,594
	(82.9)	(81.3)	(57.0)	(66.1)	(72.2)	(47.5)	(57.6)
바이오헬스	19,812	13,807	12,625	26,432	12,905	14,302	27,207
	(22.6)	(55.6)	(15.4)	(33.4)	(-6.5)	(13.3)	(2.9)
13대 합계	266,354	147,922	146,974	294,896	133,757	139,708	273,465
	(24.6)	(20.0)	(2.9)	(10.7)	(-9.6)	(-4.9)	(-7.3)
	〈43.3〉	〈41.0〉	〈39.7〉	〈40.3〉	〈39.9〉	〈43.4〉	〈41.6〉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